

도서발행의 가격탄력성과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진정민¹, 윤충한^{2*}

¹정보통신정책연구원, ²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제학부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and Economic Effects of Fixed Book Pricing Scheme

Jeongmin Jin¹, Choong-Han Yoon^{2*}

¹KISDI(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²Division of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ERICA Campus

요약 이 논문은 2014년 11월에 개정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기간인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8개 도서 분야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가격규제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381로 나왔는데 이는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임을 의미한다. 가격규제정책에 의해 도서 가격이 15% 상승한다면 도서 판매량은 20.72% 감소한다. 따라서 출판산업의 총판매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도서 판매업자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금지하는 강화된 도서정가제는 중소 도서판매자들의 이윤을 증대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도서 구매자들은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구매를 줄이므로 시장활동은 위축되므로 결과적으로 가격규제정책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며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도서출판산업의 가격규제라는 방식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성과를 악화시킨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panel model used to derive price elasticity for demand for books published from 2002 to 2013, just before the enactment of an enhancement policy for fixed book pricing in November 2014.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ice regulation policy were analyzed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The study showe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was -1.381, which indicates that demand for books is price elastic. When the average book price increased by 15% due to the price regulation policy, sales decreased by 20.72%, which reduced publishing industry revenue. The enhancement policy that prevents intense price competition between bookstores failed to increase the profits of small and medium-sized local bookstores. Price regulation has also resulted in consumer welfare and deadweight losses as consumers have to pay higher prices for books due to shrinking market activity. Direct market intervention by price regula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has deteriorated overall market performance in the publishing industry.

Keywords : Price Elasticity, Fixed Book Price Scheme, Demand For Books, Economic Effects, Social Welfare

*Corresponding Author : Choong-Han Yoon(Hanyang Univ. ERICA Campus)

email: yoonchoo@hanyang.ac.kr

Received July 25, 2022

Accepted September 2, 2022

Revised August 25, 2022

Published September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도서정가제는 책 판매에서의 판매자간 가격할인경쟁을 규제하여 도서가격을 높게 유지시켜 모든 출판사들과 도서판매업체들에게 높은 이윤을 보장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중소기업체를 대규모업체와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다같이 상생발전하게 하여 출판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기하여 도서출판시장의 전체적인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는 시장원리나 소비자들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도서정가제는 시장참여자들의 상생발전, 출판문화의 다양성 증대, 출판도서 품질의 질적 개선 등 시장을 다분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시행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어 과연 원래 의도한 시장 참여자들의 상생발전과 사회후생 증가라는 정책적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책의 의도와 달리, 가격할인경쟁에 대한 규제와 이에 따른 도서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도서시장에서 구매를 줄이고 이 여파로 시장이 위축되어 출판업체와 도서판매업체의 매출액 감소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서정가제가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서도 소비자의 구매대상이 되는 재화이므로 도서정가제에 의한 가격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매행동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원래의 목적대로 과연 사회후생을 증진시켰는지를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8개의 서로 다른 도서분야별 패널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서수요 함수를 추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를 알아내어 도서정가제가 사회후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즉, 이 논문에서는 도서정가제에 의한 가격상승의 효과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사회후생 측면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한다.

1.2 문헌연구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도서정가제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도서정가제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엇갈린다. 도서정가제가 사회후생을 증가

시킨다는 결론을 낸 대표적 연구로는 Kim 외[1]의 연구와 Bin and Woo[2]의 연구가 있으며, 반대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로는 Cho[3]의 연구가 있다[1-3]. Kim 외[1]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함을 보였다[1].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은 상승하여 구매자의 도서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의 다양성과 품질이 올라간다고 보았다[1]. 도서출판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이 양적인 시장 축소를 압도하므로 사회적 순편익이 증대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Kim 외[1]에서는 도서수요 축소에 대해 3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써서 연구방법론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선택되었다[1]. Kim 외[1]는 도서정가제로 인한 수요의 감소를 도서의 품질 향상이 압도한다는데 기반한 결론이지만 도서수요의 감소폭을 연구자들의 가정에 기반하여 지나치게 미미할 것으로 정해놓고 분석한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1]. 한편 Bin and Woo[2]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것이 특징적이다[2].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상승이 일어나고 이것이 매출액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분석 내용이다[2]. Bin and Woo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58 으로 나와 도서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라고 결론지었다[2]. 즉, 도서정가제에 의한 도서가격 상승은 도서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가격상승율보다 수요량감소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므로 결국 도서판매자의 매출액수입은 증가한다고 결론지었다[2]. 그러나 Bin and Woo의 연구에서는 본연적인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모형의 한계가 나타났다[2]. 즉,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독립적인 도서시장으로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데 한계를 보였다[2]. 즉, AIDS모형의 추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도서시장의 수요를 도서와 비교되는 다른 여러 재화나 서비스와의 관계속에서 추정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2]. Bin and Woo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도서와 관련된다고 고려된 다른 지출요소들과 도서시장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수요함수의 추정에 도서의 가격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도서구매에 대한 지출액수만 고려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2].

한편 도서정가제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낸 연구로는 Cho의 연구가 대표적이다[3]. 실증분석 결과, Cho는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가격을 각각 16%, 40% 상승시키고 판매량 총량은 12% 감소했음을 밝혔다[3]. 사회후생의 변화분 세부 추

정에서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 측면의 소비자잉여의 감소 폭이 매우 크고 판매자의 수익변화도 의외로 작고 시장 전체의 사중손실도 증가하여 사회적 총잉여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3]. 또한 판매자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가격상승의 혜택은 도서정가제의 수혜대상이 되리라 목표로 했던 중소 골목서점, 즉 오프라인서점이 아니라 대형 온라인서점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수요가 이전될 수 있는 조건은 도서수요가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고 설사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라도 효과의 크기도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다[3].

1.3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여도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수요의 추정방법에서 다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요추정식으로 AIDS모형을 이용한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도서 출판 비중, 한국십진분류법,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를 고려한 도서 분야별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도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시장을 서로 다른 도서분야의 도서특성을 고려하여 8개 부문의 도서에 대한 데이터를 pooling하여 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분야별 도서가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Bin and Wool[2] 등의 선행연구의 경우 AIDS모형 추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재화나 서비스간의 대체재나 보완재로서 도서시장의 수요를 추정하였는데 다른 지출 요소들과 도서시장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수요함수의 추정에 도서의 가격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도서구매에 대한 지출액수만 고려되는 한계가 있다[2]. 도서를 타 재화와의 대체, 보완 관계 속에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통상 특정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2. 실증분석

2.1 분석방법

만화, 학습참고서, 사전, 종교서적 등 도서시장 분석대상으로는 시장에 둔감한 특성을 가진 분야를 제외한 8개 도서분야별 패널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시기는 도서정가제 시작과 강화시점 직전을 대상으로 2002-2013년 12년간 8개 도서분야별 패널데이터에 대

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비슷한 도서 분류법으로 분야별 도서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도서수요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연구는 Webster의 연구가 있다[4]. Webster는 Lerner Index를 이용하여 개별 도서분야별 탄력성을 별도로 도출하였다[4]. 사람들이 많이 읽고 출간된 분야일수록 도서수요가 탄력적임을 밝혔다[4]. 본 연구 역시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두이십진분류법(DDC)의 주류를 바탕으로 구성된 한국 십진분류법과, 통계청의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를 고려하여 도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도서의 수요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2.2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의 국내출판산업 현황 관련 통계 중 도서 정가제 시행과 관련이 깊은 2002~2013년도의 분야별 발행부수, 분야별 평균 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서 분야별 패널분석을 통해 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12년간 연도별 8개분야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간의 흐름과 분야의 차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도서의 발행부수 데이터는 모든 출판사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보고하는 도서생산량이며 엄밀하게는 도서수요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도서수요량은 최종 소비자의 도서구매량 합계치 또는 모든 서점의 판매량 합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생산을 하는 출판사와 판매를 하는 서점은 사실상 다른 경제주체로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생산량과 판매량은 차이가 있다. 즉 판매되지 못한 재고가 생산량과 판매량의 격차이다. 이러한 미판매 도서 부분만큼의 도서 재고가 발행부수에서 제외되어야 엄밀한 판매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판매 도서의 부수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도서 발행부수를 도서판매부수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도서 부문도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이라면 장기적으로 시장균형(Market Equilibrium)에서는 생산량과 수요량이 같아질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시장균형가격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급량과 수요량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조정된다. 도서생산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구매기회도 적어지니 간접적인 루트로 수요량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생산량과 수요량이 균형에서 같아지는 쪽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도서출판산업 분석

문헌에서는 도서발행부수를 도서수요량의 대리변수로 보는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도서생산자가 도서판매 예측을 통해 발행계획을 세우고, 판매추세를 보아가며 생산량을 판매량에 일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 도서출판 산업분석 문헌에서도 도서발행부수를 도서수요량으로 간주하고 시장분석, 산업분석을 수행한 논문들은 많은 외국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5-10]. 국내 연구에서도 도서발행 데이터로 수요추정을 하는 모형에 대해 문헌연구에서 다른 연구도 있다[2].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로 불완전하지만 도서발행부수를 도서수요량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Table 1은 변수들에 대한 정의와 설명에 관한 것이다. Circulation(분야별 발행 부수)는 한국은행의 추계인구를 사용하여 1인당 분야별 발행 부수로 조정하였으며, Price(분야별 평균가격) 데이터는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서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질변수화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을 모두 로그로 변환하여 가격변수의 추정계수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Income(1인당 실질 소득)은 한국은행의 실질 GDP데이터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1인당 실질 GDP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1인당 실질 소득 역시 로그를 씌워 계수 값이 소득탄력성을 나타내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Table 2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descriptive statistics(기술통계량)이다.

Table 1. Defini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
Circulation	Per Capita Circulation
Price	Average Book Price
Income	Per Capita GDP (Real)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	Min
Circulation by Category (million)	5.259	5.151	21.133	0.623
Per Capita Circulation by Category	0.108	0.105	0.436	0.013
Price (Won)	17,009	3,620	24,579	8,862
Income (10,000 Won)	2.648	274	3,038	2.233

패널 분석에 사용된 도서 분야는 출판비중, 한국십진분류법, 통계청의 국민독서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선정되었다. Table 3은 세부 도서분류에 따른 각각의 비중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속하지 않는 학습참고, 아동, 만화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습참고지와 아동도서 분야의 경우에는 출판 비중이 가장 높지만 어린이들만이 소비하는 분야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비중이 거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만화를 도서로 구분하기에는 타 분야와의 이질성이 매우 크며,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성인,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의 경우에서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류란 여러 주제를 포괄하거나 특정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속하여, 백과사전, 사전, 전집, 총서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총류에 속하는 도서들은 개인이 소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년 구매하는 경우도 희박하다. 또한 출판비중이 전체의 0.96%이며,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역시 비중이 거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종교 분야는 분야적 특수성이 매우 강하다. 종교서적의 경우 대부분 해당 종교의 종교인이 구매하며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단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Books

Classification	Percentage (%)
General	0.96
Philosophy	1.60
Religion	3.37
Social Science	8.66
Science	0.90
Technology	4.69
Art	2.12
Language	3.62
Literature	15.54
History	1.90
Learning	14.83
Children	25.27
Cartoon	16.54

2.3 실증모형

본 연구는 한국출판연감의 8개 도서 분야별 12년치(2002-2013년) 8x12=96 관측치에 대한 패널데이터 모형의 도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여 도서정가제로 인한 도서가격 상승이 과

연 도서정가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였다[11,12]. 도서 함수의 도출에 있어 패널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해 내는 분석기법으로서 계량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석 기법으로 간주되는 패널분석을 이용하였는데 도서분야별 특이성을 고려한 도서 수요함수의 패널모형 중 가장 대표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은 다음과 같다[11,12].

$$\ln(\text{Circulation}) = \beta_1 i + \beta_2 \ln(\text{Priceit}) + \beta_3 \ln(\text{Incomeit}) + \epsilon_{it}$$

2.4 실증분석 결과

2002~2013년도 한국출판연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도서 분야별 패널 분석을 통한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도출되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서 pooled OLS(합동 최소자승법: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을 각각 추정하였다[11,12]. 3가지 추정모형에 대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specification test를 시행하였는데 Hausman test 결과, Hausman statistic은 0.477이고 p값이 0.7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패널모형 중 Random Effects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11,12].

Bin and Woo [2] 등 국내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고 한 추정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381로 도서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2]. 도서가격이 10% 상승하면 도서판매수입이 13.81% 감소하며, 도서가격이 15%상승하면 도서판매수입이 20.72%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Cho의 실증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3]. 물론 Cho는 실제 가격과 실제 판매데이터를 제도 시행 전과 후로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은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3].

수요탄력성이 가격변화에 탄력적인 경우 도서정가제의 시행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 감소폭이 가격 상승폭을 능가하기 때문에 도서판매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설립 전의 예상은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의 구매행태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Regression of Demand for Books Dependent Variable: ln(Circulation)

Variables	Pooled OLS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Constant	24.617*** (6.862)	13.930*** (4.794)	14.763*** (4.649)
ln(Price)	-2.243*** (0.362)	-1.311*** (0.394)	-1.381*** (0.380)
ln(Income)	-0.685 (0.710)	-0.489** (0.229)	-0.504** (-0.228)
R-squared	0.292	0.940	0.249

*** p<0.01, ** p<0.05, * p<0.1. Figures in () are standard errors.

Table 4에서는 8개 도서분야별 장르구분이 없이 도서분야 종합적인 공통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8개 도서 분야별 특성이 구별이 되므로 장르별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어떤 장르의 탄력성이 더욱 큰지 구별해 보면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8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가격탄력적이고 2개분야가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철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어학, 문학이 가격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술서적, 어학서적, 문학서적 분야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예술과 역사 부문은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rice Elasticities b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Price Elasticity
Philosophy	-1.178
Social Science	-1.887
Science	-1.204
Technology	-3.132
Art	-0.353
Language	-2.560
Literature	-3.535
History	-0.010

2.5 정책적 함의

수요함수 추정결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381로 나타나 가격탄력적인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시장이 가격에 대해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도서정가제에 의한 가격상승은 가격상승폭 대비 수요량 감소폭이 더 커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뿐더러 판매자의 후생도 감소한다. 따라서 도서시장의 수요특성을 무시한 도서정가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도서출판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

돌이 된다. 가격규제에 의한 평균가격의 상승은 소비자의 도서 구매량을 감소시키며 그 정도가 크다. 도서수요가 가격탄력적이므로 가격상승폭보다 수요량 하락폭이 압도하므로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3. 결론

3.1 요약

2003년 처음 선보이고 2014년 강화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영세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출판도서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도서의 발간으로 소비자후생과 사회후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대형 온라인서점의 할인폭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억제하여 대형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만일 도서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면 도서정가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가격상승이 업체들의 판매수입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나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판매수입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고, 높은 도서가격은 도서 구매감소와 독서량 감소로 이어진다.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사회적 총잉여가 모두 감소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로 예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량은 가격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잉여는 크게 감소한다. 다음으로 판매자들은 도서정가제에 따라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판매량 감소율이 가격상승율을 압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매업체들의 판매수입도 감소한다. 결국 판매량 감소와 판매수입 감소로 생산자잉여도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므로 감소한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원래의 목적인 사회후생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 정리하자면,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무시한 직접적 시장개입, 가격지정정책은 도서정가제가 원래 의도하였던 사회후생 증가라는 선의의 정책 목표를 오히려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도서시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381로 도서수요는 가격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가격의 상승은 수요량을 가격 상승폭보다 크게 감소시켜 도서판매자의 수입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도서 정가제의 기대효과

라 할 수 있는 출판시장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출판사의 이윤이 증가하고 증가된 이윤이 출판의 다양성과 도서품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출판시장의 선순환구조 논리는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도서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중소 도서판매자의 판매수입증가와 이윤증가로 연결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3.2 연구의 한계 및 제약

이 연구에서는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는 결론을 냈는데 탄력성 추정에서 모형에 포함한 변수와 이용한 도서 데이터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가격탄력성 분석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증분석 결과의 robustness(강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변수의 선택, 데이터의 범위와 종류, 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문제를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함수의 추정에서 종속변수를 판매부수가 아닌 발행부수로 설정한 것은 정확한 수요추정이라고 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탄력성 오차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판된 책들이 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자사이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엄밀하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이 반영된 판매부수로 수요를 추정하여야 하나 출판사의 공표된 발행부수를 쓰는 것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다. 판매부수는 대형서점마다 대외비로 하고 기업 고유의 자료이다. 책마다 몇권을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할인율로 판매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판매자들은 전체 도서판매 매출액 총액만 공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장르별 수량, 가격, 실제 판매부수 등이 공개가 안되어 수요추정 변수로는 구하기 어려운 점이 분석의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외비인 기업데이터에 대한 대안으로 (사)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된 자료를 근거로 집계된 연도별 출판통계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판매자료와 출판자료는 탄력성 추정치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범위와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time series(시계열) 관측치 수가 12개로 너무 작은 관례로 cross-section 8개 도서분야를 선정하여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11-16]. time series와 cross section 모두 small sample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패널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11-16]. 8개 도서분류에 해당되는 12년치 자

료는 cross section 8개 time-series 12년치로 time-series가 짧은 것을 보완하는 패널자료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수집법을 쓴 것이다[11-16]. 총 관측치는 96개로 아주 적지는 않은 관측치 수이긴 하지만 time series, cross section 어느 쪽으로도 small sample이라는 제약이 존재한다[13-16].

셋째, 이 연구에서는 8개 장르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탄력성으로 보았을 때의 공통 탄력성이 -1.381 이라고 간주하고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결론을 냈지만 도서마다 특성이 다르고 장르별로 탄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의 의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의 세부 분석 결과 8개 도서 분야별 가격탄력성이 크게 다르고 대부분이 가격탄력적인 분야이지만 비탄력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8개 도서 분야별 특성이 구별되므로 모든 도서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론이 갖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도서에서 아동, 학습참고서, 만화 등을 제외한 이유로 우선 참고서와 만화는 '독서'라는 행동에 적합한 도서로 보기 어렵고 아동도서는 완전한 성인용 도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동도서는 성인이 아닌 어린이 소비자들에게 대한 성인의 대리구매선택이 개입되므로 실제 독서인과 가격을 지불하는 구매인이 서로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경제행위 측면에서 아동도서에 대한 소비행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 선택과 차이가 있으며 소비선택에 있어서 가격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가 있다. 아동, 학습참고서, 만화를 포함할 경우는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바뀌고 도서시장의 도서정가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분석에서 제외한 아동, 만화, 총류, 종교서적의 합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8개 도서분야보다 발행부수 및 판매부수가 더 많다. 특히 아동, 만화, 학습참고서 등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인용 도서를 압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이어서 도서정가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단정적이며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아동도서, 학습참고서, 만화가 비중이 크고 비탄력적이라면 전체 도서시장이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도서정가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동, 학습참고서, 만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 분야별로 가격탄력성이 각각 크게 다르

며 도서정가제가 유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활발하고 판매기업들이 골목서점에 비해 대기업들이서 판매행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가격 할인율이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크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매되지 않은 책들을 다시 중고서점에서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온라인 판매의 존재가 도서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온라인 판매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 S. Kim, C. G. Kim, S. M. Park, An Economic Analysis on the Enhancement Policy for the Fixed Book Pricing Scheme, p.67, KPIPA Research Report,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Korea, 2013. pp.37-49.
- [2] K. B. Bin, S. J. Woo, An Economic Analysis On The Book Industry Demand Function And Price Elasticity: Using AIDS Model, p.181, KPIPA Research Report,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Korea, 2014. pp.145-170.
- [3] S. Cho,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Enhanced Fixed Book Pricing Scheme, p.98, KDI Policy Study 2015-0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15. pp.59-75.
- [4] T. J. Webster, "Retail Consolidation And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 No.12, pp.27-34, Dec. 2002.
DOI: <https://doi.org/10.19030/iber.v1i12.4005>
- [5] G. Bittlingmayer, "Resale Price Maintenance In The Book Trade With An Application To Germany",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144, No.4, pp.789-812, Dec. 1988.
- [6] G. Bittlingmayer,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Retail Price Maintenance And The Lerner Index",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148, No.4, pp.588-606, Dec. 1992.
- [7] M. Szenberg, E. Y. Lee, "The Structure Of The American Book Publishing Industry",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18, No.4, pp.313-322, Dec. 1994.
DOI: <https://doi.org/10.1007/bf01079762>
- [8] H. T. Keh, "Evolution of The Book Publishing Industry Structural Chang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Vol.4, No.2. pp.104-123, Jun. 1998.

DOI: <https://doi.org/10.1108/13552529810219593>

- [9] A. N. Gresco, "Market Concentration Levels in the U.S. Consumer Book Industry: 1995-1996",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24, No.4, pp.321-336, Nov. 2000.
- [10] S. K. Clerides, "Book Value: Intertemporal Pricing And Quality Discrimination In The U.S. Market For Book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 (10), pp.1385-1408,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67-7187\(02\)00004-8](https://doi.org/10.1016/s0167-7187(02)00004-8)
- [11] W.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5E)*, p.1024, Prentice Hall, 2002, pp.283-338.
- [12] J. M. Wooldbridge, *Introductory Econometrics(2E)*, p.863, South-Western, 2003, pp.425-483.
- [13] H. Gruber, "Competition And Innovation: The Diffus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13, No.1, pp.19-34, Mar. 2001.
DOI: [https://doi.org/10.1016/s0167-6245\(00\)00028-7](https://doi.org/10.1016/s0167-6245(00)00028-7)
- [14] H. Gruber, F. Verboven, "The Diffus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5, No.3, pp.577-588, Mar. 2001.
DOI: [https://doi.org/10.1016/s0014-2921\(00\)00068-4](https://doi.org/10.1016/s0014-2921(00)00068-4)
- [15] N. Sung, Y. Lee, "Substitution Between Mobile And Fixed Telephones in Korea",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20, No.4, pp.367-374, Jun. 2002.
DOI: <https://doi.org/10.1023/a:1015649128024>
- [16] N. Sung, M. C. Kim, "A Study On The Substitution Between Long-Distance And Mobile Telephone Calls In Korea", *KUKJE KYUNGJE YONG*, Vol.8, No.3, pp.227-247, Dec. 2002.

진 정 민(Jeongmin Jin)

[정회원]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경제학부 (경제학사)
- 2017년 8월 :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8년 11월 ~ 현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ICT통계정보연구실 연구원

<관심분야>

정보통신경제학, 미시경제학, 산업연구, 응용계량

윤 총 한(Choong-Han Yoon)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사)
- 1992년 5월 : Johns Hopkins University (경제학석사)
- 1995년 6월 : Johns Hopkins University (경제학박사)
- 1995년 7월 ~ 2003년 2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03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경제학부 교수

<관심분야>

산업연구, 정보통신경제학, 미시경제학, 응용계량